"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" 2023 정부 업무보고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민우 (044-203-4210)
		담당자	서기관 한종호 (044-203-4211)
			사무관 김효선 (044-203-4212)
			사무관 박광일 (044-203-4215)
			사무관 박성수 (044-203-4214)

【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】

'23년 수출 6,800억불 이상 달성, 설비투자 100조원, 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

- '26년 수출 5위, 제조 3위, 경제영토 1위 비전 제시 -

☞ **대통령 주재 '수출전략회의', '수출카라반'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**
☞ **바이오경제2.0, 에너지르네상스,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**
☞ **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**

1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

○ 역대 최대 **360조원 무역금융** 공급, **청년 무역인 매년 1,500명** 양성
○ 체코, 필리핀, 영국 등 **원전시장 개척, 방산·플랜트 수주** 총력 지원

2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

○ 10대 업종 **100조원 투자프로젝트** 지원으로 투자 플러스 달성
○ 상생인센티브, 인허가 타임아웃, 공타면제 등 **신속행정 3종세트** 도입
○ 11대 초격차 R&D, 탄소저감 등 **산업 R&D 5.6조원 투자**
○ **바이오경제 2.0**, **에너지 르네상스**, **산업대전환**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

3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

○ 신한울 3·4호기 등 **원전 일감 3.5조원** 공급, 전년 대비 1.1조원 증가
○ **혁신형 SMR** 개발 본격 개시, **'28년까지 총 4,000억원** 투입
○ 전력 실시간 거래, 가격입찰 방식 도입 등 **전력시장 혁신제도 시범 도입**

4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

○ 美 IRA, EU CBAM 등에 선제적·전방위 대응 및 **Fab4 전략적 고려**
○ 중남미·중동 **FTA 체결** 및 자원부국과 **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**
○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**선진형 ODA** 추진

【 업무보고 개요 】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12.27(화) 2023년 업무계획 「**튼튼한 실물경제,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**」을 보고했다.

○ 산업부는 2022년 한해 **탈원전 폐기** 등 **에너지정책을 정상화**하고, **13년만에 원전을 수출**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○ 러-우전쟁, 3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**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**를 기록하고,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**민간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**하였다.

○ 그러나,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·투자 쌍둥이 절벽, 자국우선주의 확산,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**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이에 따라, 산업부는 내년도 **경제위기 집중 대응**과 **위기 이후 미래준비**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,

○ **❶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**, **❷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**, **❸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**, **❹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**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.

【 업무보고 주요 내용 】

1.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

□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**수출은 4.5% 역성장**이 예상되나,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**수출 플러스를 달성**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

1 **무역금융, 인증, 마케팅** 등 **당면한 3대 수출애로**를 집중 해소한다.

○ **역대 최대 수준**인 **360조원 무역금융**을 공급하고,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**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(2.7%p 금리우대)**도 신설할 계획이다.

○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, 원스톱 지원체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**해외인증지원단**을 설치하고, **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**하는 품목도 확대(120개→150개)할 계획이다.

○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,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**인증, 마케팅, 물류 예산의 2/3(약 9천억원)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**할 계획이다.

2 **청년 무역인** 양성과 **디지털 무역 확대**를 통해 **수출의 저변을 확대**한다.

○ 교육·취업·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매년 **청년 무역인 1,500명**을 양성하고 '**청년 수출붐**'을 조성할 계획이다.

○ **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**하여 콘텐츠 제작,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, **화상상담 확대**, **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** 등을 통해 **'국민 누구나 수출하는' 환경**을 조성한다.

3 **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**을 통해 **수출시장을 다변화**한다.

○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**신흥시장과 자원부국**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**무역보험 우대,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**하고 **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**한다.

- **(아세안 시장)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**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**중간재와 한류·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**을 확대한다.

- **(중동 시장)** 脫석유, 산업화 정책에 맞춰 **한-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**하고, 플랜트,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.

* 원전수출, 수소, 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쉽 구축

- **(중남미 시장) 신규 FTA 체결**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**소비재 수출을 확대**하고, **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**을 강화한다.

* 칠레-아르헨티나(리튬), 브라질(니켈), 멕시코(무수불산 등)

- **(아프리카 시장)**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, 보건·식량문제에 대응하여 **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**를 통해 의료, 스마트팜, ICT 진출을 확대한다.

○ 주력시장인 **미국 시장은 IRA, 공급망 재편** 등을 활용하여,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, **중국 시장 봉쇄완화, 내수 확대 등**에 대응하여 실버, 엔젤,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.

4 **원전, 방위산업, 해외플랜트** 등 **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**를 추진한다.

○ **폴란드, 체코의 원전 수주**는 차질없이 추진하고, **필리핀, 영국, 튀르키예** 등 **신규 시장**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.

○ **방위산업**의 경우 **'23년 170억불 이상**(금년수주) **수주**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,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, **민군 겸용 R&D**에 **5년간 1조원 이상**을 투입할 계획이다.

○ **해외 플랜트**는 **'23년 300억불 수주 달성**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하여 시장조사, 컨설팅,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5 대통령 주재 **'수출전략회의'**를 통해 **강력한 수출 드라이브**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·추진한다.

○ 또한, **'수출 카라반'**을 신설하여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, 이를 **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**를 통해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.

2.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

□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**총 100조원의 설비투자**를 실행할 계획이다.

○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**투자도 플러스 성장**할 수 있도록,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① **설비, R&D, 외국인투자** 등 **3대 투자**를 촉진하여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.

○ 우선, **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** 지원을 위해 **규제개선, 인허가 지원, 투자 인센티브 확대**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-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, **상생인센티브 체계, 인허가 타임아웃제, 공공기관 예타면제** 등 **신속행정 3종 세트**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* 상생인센티브 : 기업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
인허가 타임아웃 : 일정기간 도래시 인·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
공공기관 예타면제 :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예타면제 특례 적용

- **설비투자 증가분**에 대한 **세액공제율**을 대폭 상향(최대 3~4% → 10%)하고, **디스플레이**는 **국가전략기술**에, **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**는 **신성장·원천기술**에 각각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한다.

○ **산업기술 R&D에 5.6조원**(기후기금 포함)**을 투자**하여 민간의 R&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.

- 특히, 반도체, 미래모빌리티 등 **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**에 산업 R&D 예산의 70%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,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'30년까지 민·관이 함께 **9,300억원**(국비 6,947억원)**을 투자**할 계획이다.

- **R&D 성과의 사업화 촉진**을 위해 **공공硏의 기술이전을 허용**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'**스타연구자**'를 배출할 계획이다.

- CVC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결합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, 민간 R&D 투자 확대 및 사업화를 위해 CVC의 적극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. 이에 따라 **2,000억원 CVC펀드 조성**, **CVC 투자연계형 R&D**를 추진할 계획이다.

* CVC : Corporate Venture Capital, 기업형 벤처캐피털

○ **외국인투자**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**300억불 이상 유치**를 추진한다.

-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**최대 50%까지**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**10%p 상향**할 계획이다.

-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**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**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

② **첨단, 주력,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**을 추진한다.

○ **첨단산업**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

- **(반도체) 신규 국가산단 조성** 및 필수 **인프라 국비지원**(1,000억원)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, 반도체 아카데미·특성화대학(원)·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하여 전문인력 8,300명 양성을 추진한다.

- **(이차전지)**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핵심광물을 확보하고, **해외광물투자시 세제·재정 지원**을 확대할 계획이다. 국내-해외 투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내는 R&D센터 및 **첨단생산의 Mother Factory**로, 해외는 양산기지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.

- **(디스플레이)**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**국가전략기술로 지정**하고, **무기발광 디스플레이**(마이크로LED, 나노LED)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·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**주력산업**은 디지털·그린 신속 전환을 통해 **新주력산업**으로 육성한다.

- **(자동차)** '30년까지 車-SW **융합인력 1만명**을 양성하고, **'자동차부품 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'**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**(철강)** 탄소배출량 측정, 검인증 인프라 등 **CBAM 대응기반**을 마련하고, 수소환원철,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**'30년까지 2,000억원**을 투입할 계획이다.

- **(조선)** **AI·로봇**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**인력난에 대응**하고, 전기추진선, 수소·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. **저가 수주 방지**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다. ('23)

- **(탄소복합재)** 우주항공시대 **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**하기 위해 UAM, 소형발사체, 인공위성 등 **3대 실증 프로젝트**를 추진하고, 민간의 '30년까지 2.1조원 규모 투자계획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**소재부품장비 산업**은 '30년까지 200대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내 생산 비율 50% 이상, 특정국 의존도 50% 이하를 목표로 **'산업공급망 3050 전략'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**(자립화)**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(150→200개)하고, 바이오, 미래차 분야 **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**할 계획이다.

- **(다변화)** 소부장 특별법을 소부장·공급망 특별법으로 개정하고, **대체 수입처 발굴, 민간비축 확대** 등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3 **지역경제 활성화**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을 추진한다.

○ **기회발전특구**를 신규 지정하여 적극적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을 추진하고, **지역 전략산업**에 인력·R&D·인프라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.

○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**'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'**을 도입하고,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
○ 지역 기업이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지방 대학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과 **계약 랩(Lab)**, **공동연구 프로그램**('23년 3개 컨소시엄)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연계형 지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4 **미래 먹거리 창출** 및 **산업대전환**을 본격 추진한다.

○ **'바이오경제 2.0'**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.

- **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** 구축('24~'32년, 9,988억원 예타중, 과기·복지부 등 공동)을 추진하고, 이를 의료·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.

- **바이오 소재** 선도 프로젝트('23 690억원), **바이오 파운드리**(3천억원, 예타추진, 과기부 공동) 구축 등을 통해 R&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.

- **바이오 에너지**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(4천억원) 예타를 추진하고,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.

○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**'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'**를 추진한다.

- **(수소) 수소발전 입찰시장** 개설('23.상), 액화수소 플랜트(연 4만톤 규모)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.

- **(해상풍력)**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**10MW급 대형터빈 실증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**(CCUS)** 동해 가스전에 **연 40만톤 실증**을 기획('23.상)하고,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('23.상)할 계획이다.

- **(고효율기자재)**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,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**2,600억원 융자사업**을 시행한다.

- **(스토리지)** 非리튬, 장주기 ESS 등 **저장장치 범위를 확장**하고 에너지 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○ 투자활력 저하, 인구 절벽, 생산성 정체에 따라 제로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**'산업대전환 전략'**을 수립한다.

* 韓 1인당 잠재성장률(%, OECD) : ('00~'07)3.8 → ('07~'20)2.8 → ('20~'30)1.9 → ('30~) 0.8

-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**산업대전환 포럼**을 운영중이며,
- 투자주도 성장, 산업인재 공급, 생산성 혁신,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민간 제언을 도출해 **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**을 발표할 계획이다.

3.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구조혁신

□ 러-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고, 석유, 가스, 석탄 등 에너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**에너지안보를 강화**하는 한편, 그간 지연된 **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**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.

1 **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**하고,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.

○ **신한울 3,4호기**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'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**부지정지공사에 착수**할 예정이다.

○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'22년 대비 1.1조원이 증가한 **3.5조원의 일감**을 공급하고, 신한울 3,4 외에도 '25년까지 **매년 1기씩**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* 원전 준공 계획 : ('23년) 신한울 #2, ('24년) 새울 #3, ('25년) 새울 #4

○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하여,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**'23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**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
* 고리 #2·3·4 운영변경허가 신청, 한빛 #1·2 및 한울 #1·2 안전성평가 신청('23.下)

○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**특별법 제정**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**설계발주**(고리), **예타**(한빛·한울)도 착수한다.

○ 원전 혁신기술인 SMR **개발**도 본격 개시하여,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, **4천억원 규모**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.

* 혁신형 SMR 1차년도 연구 개시('23~'28년, 총 3,992억원)

2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**에너지안보를 강화**한다.

○ **가스, 석유 비축 확대**를 추진하여, 가스는 **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**에 착수하고, 석유는 '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'23년에 **47만배럴을 추가 확보**할 계획이다.

○ 이차전지, 전기차에 쓰이는 **10대 전략광물**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,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**세제지원 확대**와 **핵심광물 비축 확대**(평균 54일분 → 100일분)도 추진한다.

○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, **풍력 보급 확대**를 통해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**종합패키지**를 '23년 1/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

3 **에너지시스템의 혁신**도 추진한다.

○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**단계적으로 정상화**하는 한편,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**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**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
○ **에너지 저소비·고효율 구조로 전환**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,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(FEMS)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.

○ 전기위원회를 개편하여 **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, 전문성을 확보**한다.

○ 전력시장에 **실시간·가격입찰 방식 도입**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.

4.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

□ 최근 미·중 패권경쟁,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.

○ 산업부는 **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**을 **추진**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1 **급변하는 통상환경**에 대응을 강화한다.

○ **미국 IRA**는 한-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**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**할 계획이다.

○ EU의 **탄소국경조정제도**(CBAM)는 **'對EU 통상현안대책반'**을 구성하여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,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.

○ 미국, 일본, 대만이 함께하는 **4자간 반도체 협력**(Fab4)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,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**전략적으로 검토**한다.

2 **新시장 개척**을 위해 **산업통상협력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
○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UAE,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,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**제2의 중동 붐 조성**을 추진한다.

○ GCC(걸프협력회의)·에콰도르·과테말라 등과 **신규 FTA 체결**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 **공급망 협력 네트워크** 구축을 추진한다.

3 IPEF·WTO 등 **신통상규범 논의를 주도**한다.

○ **인태경제프레임워크**(IPEF)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규범 선도,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,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, 협상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계획이다.

○ EU, 아세안 등과 **디지털 통상 네트워크**를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, 유엔기후협약 등 **글로벌 기후, 환경 논의**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4 국격에 걸맞도록 **국제사회에 기여**한다.

○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,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**공급망·그린·기술 3대 분야** 중심으로 **ODA를 고도화**하고,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.

○ 정부·민간 모든 주체가 'Korea One Team'으로 부산엑스포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.

붙임 : 인포그래픽(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)

붙임 **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**

